

투데이 칼럼

지진, 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자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등 태평양 제도, 북미, 남미의 해안지역을 잇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요동치고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 판, 유라시아 판, 북아메리카 판들이 맞물리는 경계지역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아서 일명 '불의 고리'라고도 불린다. 이 지역에서는 전 세계 지진의 80%, 화산의 75%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50주년을 주기로 대규모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이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6.5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나왔고, 700여회 이상의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17일에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상당히 큰 강진이 일어나 650명이 사망하고 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극을 빚었다.

지진을 강도별로 살펴보면 5~6 규모에서 대부분의 골목이 무너지고 약한 구조물은 심하게 피해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입으며, 7~8의 경우에는 거의 전체 석벽구조가 피해를 입고 교량과 댐이 심하게 파괴되며 철도가 휘고도 하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진의 강도와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강진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우리나라에도 미세하나마 진동을 전달하고 있어 앞으로 큰 관심과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된 유라시아 판에 위치해 있어 화산과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요동치는 '불의 고리'가 유라시아 판과 접해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라고만 자신할 수는 없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는 현재 세계의 지

진상황과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을 다루었는데, 일본에서 진도 8.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백두산 밑에 가두어있는 마그마 방을 자극하여 화산폭발이 위험이 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폭발이 있을 때에는 한반도 전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가설과 우려가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한 경험과 대비가 전무하다는 것은 현재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점차 닦쳐올 지각변동의 가능성 앞에 매우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지진과 재난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지진사태 이후에도 큰 사회적 혼란이 없이 서로

를 위로하며 극복해나가고 있다. 물려터러 받기 위해 두 세 시간씩 줄을 서야하는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직원 하나 없이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난에 얼마만큼 대비되고 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축물을 세울 때 지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한 지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된 아파트 중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 이상을 받은 아파트가 1년 새 3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연쇄 붕괴 위험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

다. 재앙은 자연에서 오지만, 그 피해는 인재(人災)에서 온다. 실제로 우리는 인재(人災)라 불리는 슬픈 참사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설 안전과 재난대비에 대해서 무디고 태평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이웃나라의 재해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음을 깨닫고,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장기적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성범죄피해자는 본인의 피해회복보다 먼저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스스로 범죄행위를 당했다는 자책감으로 고통을 당한다. "쫄쫄 핑소 행실이 어쨌든..", "나 그럴 만 하니까 그런 거겠지!", "아니 댐 골목에 연기가 나겠냐"라며 특목 내 던지는 말로 인해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음에도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그들의 관계가 '사랑싸움'으로 치부되고, 가해자와 미추치가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직장도 학교를 옮기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정작 그들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를 만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만나기 두려워 가슴 졸이며 피해 다쳐야 하는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재판과정에서는 "왜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느냐,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피해자는 다시 한번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마치 자기 잘못인 것 마냥 위축되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우리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거나 믿었던 가족에게 피해를 당해도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으며 남녀 불문하고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 다 책임이 있거나 여자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서,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녔다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 해줄 수 없다. 2차피해는 또 일어난다. 범죄내용과 피해자의 인격은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이파리파로 퍼져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이 정든 직장, 학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성범죄의 가장 큰 난제는 피해자의 신고이다.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고 말하고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껴 신고를 주저하며 혼자 고통을 참아내는 경우가 많다. 임도훈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이륜차 안전모 착용으로 생명을 지키자

최근 날씨가 풀리고 봄철이 다가오면서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도 이륜차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하면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의 안전모는 차량의 안전띠와 에어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모로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높고 특히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 미착용 운행을 하거나 실사 착용을 하더라도 턱 끈을 잘 조이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고용주도 종업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함과 동시에 안전장비 구축과 안전운행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안전모 착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때이다.

박규선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지날 오늘의 모습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10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같은 정서는 어느 한 두 사람의 것이 아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정서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내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뿐만 아니라 그제 아니었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새만금 사업은 어찌된 일인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색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동안 새만금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왔다. 새만금 개발로 드넓은 대지를 얻은 것이 빛이라면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는 그림자였다. 중요한 고비마다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문제가 논쟁을 거듭 불러 일으켰는데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이 공강대를 얻으면서 개발 속도를 내려면 새만금호의 수질을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제 담수호 방식이든 해수 유통 방식이든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 녹색연합 등 29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던 거 말이다. 그때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수

질 중간 평가'를 앞두고 그들은 기자 회견을 열고 말했다. '새만금 수질대책 실패 인정하고 해수 유통으로 변경하라!'

전북도는 이제 뉘가기를 보여 줘야 한다. 새만금 수질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정신이 사나워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만금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지만 도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는 고사하고 귀 시끄러운 쟁점만 들려주고 있으니 답답하다. 물막이 공사를 해야한다느니 안된다느니 욕심각심하던 것까지 생각하면 새만금 사업은 그 역사가 깊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을 말할 때마다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아리울의 완공은 난망하다.

전북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만경강 정화에 퍼부은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도 수질은 여전히 6등급이다. 만경강 하류 지역은 물론이고 상류 지역도 함께 나서야 한다. 오염물질을 내보내면서도 새만금 민자 유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실하다. 전북도는 2020년까지 담수호 완공을 말했다. 이제 그제 몇 년 안 남았다.

전북도, 현안사업 추진에 힘 쏟아야

전북도에 줄 말이 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현안사업들에 힘을 쏟아야겠다. 상당수가 장기표류한 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 하는 말이다. 본보는 예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발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었다. 오늘날 전북도 관계자들은 도민이 기대한 만큼 부응해 일해줬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도지사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7개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추진은 정부의 투자만이 아니라 민자 유치도 함께 병행돼야 바람직하다. 새만금과 관련하여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체들이 하나같이 등을 돌렸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이 청사진에 못 미친다면 고장의 발전은 요원하다. 핵심 사업들이 허물없이 세월을 길게 끌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곤란하다. MOU 체결을 할 때만해도 다들 기대가 컸으나 지금은 그 기대가 운데간데 없다. 체결 계약서를 들고서 민변에 웃음을 지으며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나

중에 없었던 일로 했던 게 하나들이 아니다. 참으로 속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사업들마저 실패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난감하다. 비전이 있는 사업들마저 정부로부터 흠살을 당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정부 측에서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던 것도 아니고 적극 지지를 약속했음에도 그러니 말이다. 표류 상태로 있는 현안 때문에 도민들의 마음은 저조하다. 도민들이 비뚤어진 비는 정부의 전폭적인 승인과 함께 원활한 추진이었다. 그런데 그제 이쪽의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요구하는 쪽과 요구받는 쪽의 생각이 일치할 수가 없다지만 현안이 마냥 현안으로만 남아서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전북도는 현안사업 추진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진실로 목표한 바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현안이 현안으로만 남아서 장기 표류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전북도는 도지사의 행보에 힘을 보태야 한다.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당부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